

미국 흑곰쓸개의 의학적 이용

본문은 지난 3월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는 공 부위 무역에 관한 제2차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된 필자의 발표문 요지이다. 美흑곰 교역에 관한 IUCN산하 곰관련 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동세미나는 곰쓸개의 한의학적 이용등 교역 전반에 관한 심층논의가 있었다.

김성훈/대전대 한의대 교수

곰 보호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본인은 한국에서 8년간 한의사로 한의원을 개원하여 한약을 취급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본인은 한의학 분야의 입장에서 솔직한 본인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곰을 포함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CITES와 WWF, TRAFFIC, EIA의 노력에 진정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최근 본인은 「곰 보호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다시 계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 과연 우리가 기대한 대로 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는가?」하고 자문해 보았다. 대답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 의약을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국가에서는 말이다.

한의사들은 비록 한방 처방에 따라서 간질 환과 심혈관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소량의 곰 쓸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곰과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에게 CITES의 원칙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발간한 바 있는 TRAFFIC EAST ASIA NEWSLETTER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한의학은 오랫동안 서양의학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건강에 기여해 왔다.

간단히 말해서 한의학은 동양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원리는 음은 땅이고 양은 하늘이라는 「음과 양」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은 음양인으로서 음양의 평형 조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질병 치료와 건강을 위해 오랜 세월동안 전통한약과 자연 유래 한약을 사용해 왔던 것이다.

신의 작품이 인간의 작품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자연에 근거한 약이 인공적으로 합성된 약보다 그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다.

이와같이 기존 우리의 문화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는 오래된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모두는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만일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곰 쓸개의 거래가 제한된다면, 밀수와 밀렵은 더욱 성행할 것이고 곰 쓸개의 가격은 현재 4백달러보다 더욱 비싼 1천달러의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며 앞으로 마피아에 의한 범죄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미국의 흑곰을 보호할 수 있을까? 물론 곰 쓸개의 불법적인 거래는 엄격히 금지되어야만 한다. LA세관에서 곰쓸개의 불법거래는 주로 무역거래자나 여행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모든 무역 거래자들이 정부나 합법적인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곰 쓸개를 수입, 수출, 소유할 수 있도록 곰 쓸개의 합법적인 무역이 조장된다면, 곰 쓸개의 가격은 더욱 싸지고 마침내 불법거래는 줄어들 것이다. 또한 합법적 거래를 통해 곰쓸개의 사용이 의학적인 사용과 실험연구를 위해 제한된다면 곰쓸개의 소요량도 줄어들 것이다.

Novia scotia보고서에 따르면 약 4만마리의 미국 흑곰이 밀렵이나 사냥으로 죽었다고 들었다. 단순한 흥미를 위한 사냥이나 불법 상업적 이용을 위한 밀렵을 막고자 한다면 빠르게 번식하는 곰들은 엄격한 수 조절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곰들을 번식시키고 보호하기만 한다면 결국 어떤 상황이 될까? 곰은 빠르게 번식하여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므로 단순한 곰보호나 번식만이 최선은 아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46,000여마리의 아시아 곰만이 생육되고 있어 미국곰 보다 더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사냥으로 죽이는 미국 곰의 쓸개일부를 동양권에 수출한다면 인류 건강 이바지와 아시아 곰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 곰 쓸개는 우리가 어떤 응급환자를 위해 우리의 장기를 기증하듯, 긴급한 생명을 위해 또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비록 몇몇 성분들 즉 tauroursodeoxycholic산 (UDCA), chenodeoxycholic산, chloeric산 등이 밝혀졌어도 인공적으로 합성된 곰 쓸개의 대체물은 자연 그대로의 곰 쓸개와 같은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강장효과에 좋은 인삼 뿌리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비록 20종 또는 더 많은 종류의 사포닌이 인삼에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삼의 모든 성분이 역시 자연 그대로의 인삼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UDCA보다 더욱 효과적인 대체물을 발견하는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흑곰생명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 단순한 흥미를 위한 밀렵, 사냥 등의 불법적인 거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지만, 곰 쓸개의 합법적인 거래는 오직 의학적인 사용과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

본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진정으로 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똑같은 목적을 위해, 방법상 다른 의견을 말한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한의학신문. 1997.4.7>



● 포커스

국내에도 뉴질랜드나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 선진 양육국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없는 사슴농장이 꽤나 있다.

현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에 자리한 선진사슴목장(대표 강성구)은 엘크 30여두를 산에 방목사육하고 있다.